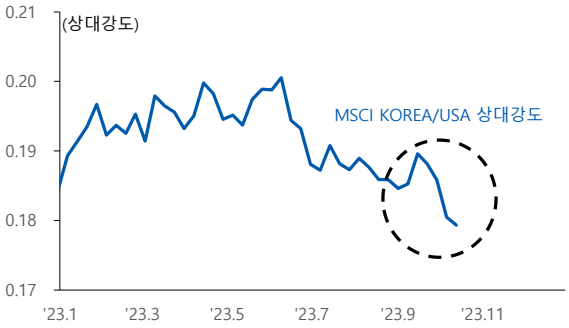
Equity Market Analyst 강대석
02-3770-3631 / daeseok.kang@yuantakorea.com

잠영구간

1. 상대적 부진 보이는 국내증시

- 최근 국내증시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도 좀 더 답답한 흐름 보이는 중
- 금리는 대외요인을 좀 더 반영하면서 미국금리와 상관관계를 높여가고 있으나, 증시는 상대적으로 더 부진하면서 최근 상관관계가 다소 약화
- 고금리, 고유가와 같은 매크로 요인의 부담 외에도 내부적 수급요인도 부정적 작용

증시는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더 부진한 모습 보이며 상관관계 다소 약화



자료: Bloomberg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2. 상대적 부진의 배경

- 특히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순매수가 누적됐거나 신용잔고가 빠르게 쌓였던 2차전지 업종이나 KOSDAQ 지수를 중심으로 매물 출회. 전일(10/10일) 증시 흐름이 극명한 사례
- 하반기 이후 KOSPI 대비 KOSDAQ의 신용잔고는 과거 평균수준 가까이 회귀 중이나, 가격조정 자체가 또다시 손절매성 매도를 야기하는 상황
- 국내증시 바닥권에 있다는 판단이나 회복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전망

하반기 KOSPI 대비 KOSDAQ 신용잔고 비율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

자료: Bloomberg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1. 상대적 부진 보이는 국내증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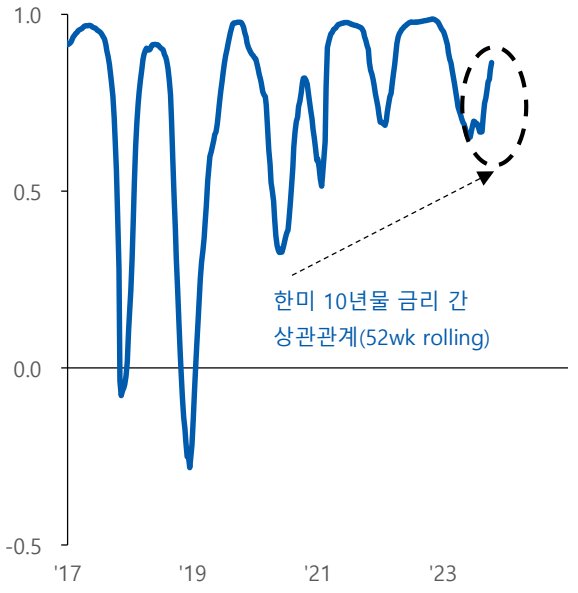
증시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. 특히 국내증시가 그렇다.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더 부진한 모습이다. 아쉽게도 이러한 상대적 부진은 곧바로 해소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.

예컨대 현재 증시에 가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리의 경우, 국내 경기의 펀더멘탈 요인보다는 대외요인을 좀 더 반영하면서 미국과 상관관계를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.

반면 주가는 그렇지 않다. 미국증시가 견조한 고용지표나, 이스라엘-팔레스타인 전쟁에도 불구하고 점차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국내증시는 최근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거나 하락 전환하는 등 부진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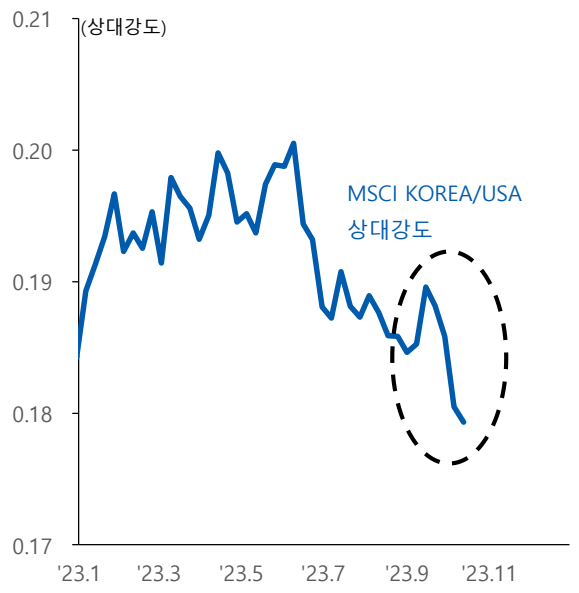
KOSPI 지수가 다운사이드보다는 업사이드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으나 글로벌 증시, 특히 미국증시 대비 상대적 부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. KOSPI는 일종의 잠영구간을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다.

[차트1] 금리는 미국과 상관관계 높여가며 대외요인을 더 반영하는 듯한 모습



자료: Bloomberg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2] 반면 증시는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더 부진한 모습 보이며 상관관계 다소 약화



자료: Bloomberg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2. 상대적 부진의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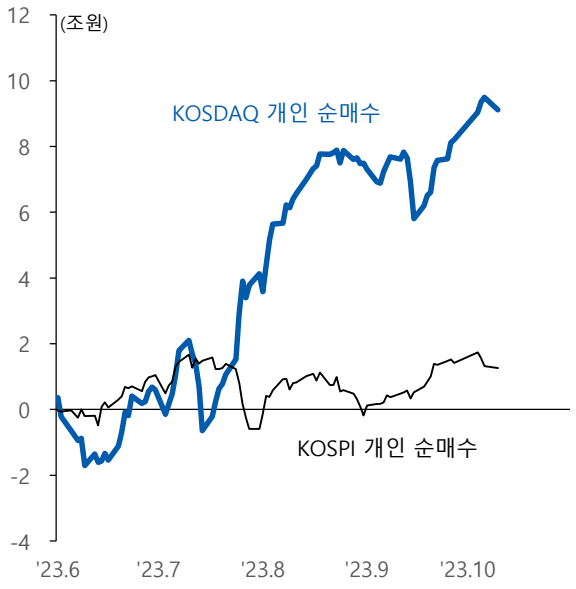
현재 증시에 가장 부담스러운 매크로 요인은 고금리와 고유가인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, 금리는 미국과 상관관계 높여가며 국내 경기 대비 대외요인을 좀 더 반영하면서 부담을 주고 있다.

또한 원유를 수출하는 미국과 달리 원유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의 경우 유가 수준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. 최근 이스라엘 – 팔레스타인 전쟁의 확전 가능성과 같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가의 변동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.

그러한 가운데 국내증시 내부적으로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대매매 또는 손절매가 수급상 불리한 요인으로 판단된다. 예컨대 전일(10/10일) 국내증시는 글로벌 증시 대비 유독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하락 전환했는데, 개인투자자들의 매물 출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.

이에 따라 개인 순매수 및 신용잔고가 빠르게 늘어났던 2차전지 업종이나 KOSDAQ 지수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확인된다. 가격조정이 손절매성 매도를 부르고, 매도가 또다시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.

[차트3] 테마주 장세 등 개인 순매수 누적됐던 KOSDAQ 중심으로 매물 출회



자료: Quantiwise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4] 하반기 KOSPI 대비 KOSDAQ 신용잔고 비율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

자료: Quantiwise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3. '안전'에 대한 관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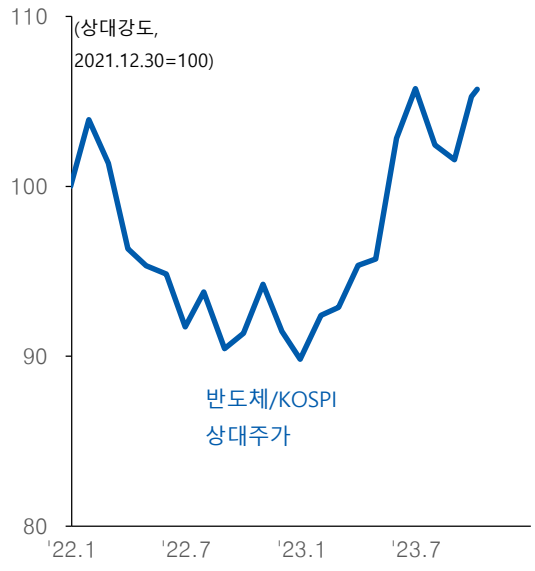
대외요인뿐 아니라 국내 내부적 요인도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는 쉽지 않다. 특히 늘어나고 있는 반대매매와 같은 손절매성 매도는 끝을 예단하기 어렵다.

이러한 상황에서는 가격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거나, 신용잔고가 상대적으로 덜 쌓인 업종들로 회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. 예컨대 반도체, 금융, 통신과 같은 업종들이 그렇다.

한편 지난 주말 이후 불거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. 과거 2000년 이후 주요 분쟁들이 주로 단기에 그쳤거나 증시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고 해도 이란, 사우디 등 주변국으로 분쟁의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.

증시가 호재보다는 악재에 좀 더 민감한 모습을 보이면서 공포구간에 있는 심리를 비롯해 가격도 바닥 근처로 판단되나, 탄력적인 회복을 보이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.

[차트5] 반도체 업종 주가의 사례, 지수 대비 견고한 모습 이어가는 중



자료: Quantiwise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6] 이스라엘 – 팔레스타인 전쟁, 2000년 이후 분쟁은 짧거나 증시 영향 제한

자료: Quantiwise, 언론보도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